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최 '행복나눔 스키캠프' 현장



"어서 스키타고 싶어요!" 스키장비를 대어받은 청소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스키를 타러 달려나가고 있다.

## “신나는 스키... 추워도 행복해요”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던 2월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스키장에는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추위로 잊은 채, 제동결기과 방향 바꾸기 등 스키기술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다. 몇 번이나 눈 위를 뒹굴면서도 아이들은 입을 모아 "너무 너무 맛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스키장이 이렇게 멋진 곳인지 몰랐어요. 앞으로 평생 동안 추억을 간직 할래요!"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주최한 '행복나눔 스키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이다.

SK텔레콤이 후원한 이번 캠프는 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8일까지 1박2일간 열렸다. 과천, 궁동, 구로종합복지관, 혜명보육원, 등지청소년의집 등 불교계 복지관과 보육원 외에도 기독교 부스리기사문화회와 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운영하는 타종교 복지시설 및 공부방 청소년들도 다수 참가했다.

각 종교계 복지시설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은 자신을 위해 무료 스키캠프가 열린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눈이 펄펄 쏟아지는 것만으로도 좋는데, 난생 처음 스키를 타는 설레임에 한없이 밝고 환한 얼굴들이었다.

유난히 조용한 이재영군(중2)은 기대했다가 실망하기 보다 먼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더 익숙한지 "스키장이 별 건 가요!"라며 애써 담담한 투로 말했지만 동생 윤경이(초4)는 신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에 한 번 썰매 타러 간 적 있었는데 그때도 가족들은 못가고 저만 복지관 따라 다녀온 거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오빠랑 같이 스키장에 오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윤경이는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부모님이 함께 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스키장에 처음 오는 것은 이들 남매뿐만이 아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건넨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



### 저소득 결손가정 청소년 200여명 초청 개신교 복지시설 아이들도 다수 참가 함께 어울리며 종교간 이해 폭 넓혀

이사 지현 스님은 아이들에게 "스키 처음 타보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라고 질문했다. 다섯 명을 제외한 아이들이 전부 손을 들었다. 스키는커녕 가족끼리 소풍이나 근교 나들이를 간 경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집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로 게임하며 방학을 보낸다고 했다. 저녁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가서 저녁을 때우거나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렸다.

보육원에서 5년째 생활하고 있는 한 아이는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이런 캠프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스키캠프는 보육원에서 업무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만큼은 아이들다운 활기찬 모습으로 눈 세상에 빠져 들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뽀뽀할 수 있는

아도, 보육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엄마 아빠를 기다려도, 잠시나마 그들이 진 집의 무게를 잊은 듯 했다. 완만하게 경사진 슬로프에서 스키를 신고 선 아이들은 주변에 눈썰미로 뒤덮인 설경을 보고 연신 탄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동안지역아동센터에서 참가한 서지은(초4)은 스키장비를 지급받자 "학교 친구들이 방학 때 가족들끼리 스키장 다녀왔다고 자랑하면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나는 못 가볼 거라고 생각했던 스키장에 오게 돼서 신기하고 믿겨지지 않는다"며 환하게 웃었다.

"양발을 넓게 벌리고 스키 앞 쪽에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리세요. 멈추고 싶을 땐 발 뒤꿈치를 넓히고 엄지발가락 끝에 힘을 모으면 저절로 서게 되지요." 스키 강의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주의깊게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열심히 들어도 막상 직접 스키를 신고 실천에 들어가자 생각만큼 쉽지 않다. 아이들은 이리저리 부딪치고 즐거움 비명을 지르며 스키를 마음껏 즐겼다. 스키캠프는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각 종교단체 임직원들은 "종교 복지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이 같은 협력차원의 행사를 시작함으로써 종교간 교류와 화합의 물꼬를 댄다"고 행사를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 종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손꼽았다. 한 개척교회 목사는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타종교와 더불어 사는 법과, 오늘 뜻 깊은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설명해줄 생각"이라며 "다른 어떤 종교행사보다도 이 행사가 아이들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눈밭을 굴러도 미안할까 웃는 청소년들.



1박2일간의 '행복나눔스키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빙등축제의 얼음조각을 구경하며 탄성을 지르고 있다.

## 향(香)의 문화창조 선도하기 30년 만복향당

이제는 향을 피우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의 만복향당과 진품의 향기를 만나는 소중한 경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주)만복향당 임직원 일동

세계적 수준의 조향기술을 자랑하는 일본향당(Nippon Kodo)과 합작하여 만든 (주)만복향당이 엄선된 원료들로 만든 고급향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한층 더 편안하게 해 드릴 것을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본 제품들은 자연과 생활속에 향기를 자연소재 그대로 충실하게 표현한 아로마테라피(향기치료)적인 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향을 접하시는 동안 자연에 대한 감사와 자신만의 소중한 행복한 시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株)萬福香堂 www.mhbd.co.kr

- ◆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 2동 374-3 봉우시티 3층 대표전화 02)577-4155 / FAX 02)577-0746
- ◆ 공장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47-2 전화 055)864-2432

부산 대리점 051)256-3353  
광주(삼화불교사) 062)367-0652  
대구(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이화불교사) 063)251-7675

광주(불교서원) 062)226-3056  
양산통도사(불연산방) 055)381-1060  
익산(화엄불교사) 063)843-3220

### 침향(沈香-3종)

침향은 향기가 가리앉는다. 또는 물속에 잠긴 향이라는 뜻입니다. 침향이라 함은 한 마디로 모든 향(香)의 재왕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중에서 향균, 방충등의 거의 모든 면에서 최고인 고귀한 자연의 선물이며 특별한 분들에게 제안하는 제품입니다.

침향수선    가리곰강    가리대관

### MEDITATE(메디테이트-4종)

건강을 생각하며 만든 향입니다. 활력과 좋은 기분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NK PURE(12종)

천연 농축향을 사용하여 향기가 풍부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라벤더, 로즈마리, 자스민, 유자, 녹차, 페퍼민트 등)

### NATURENSE(네추렌스-5종)

자연향의 의식을 가진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향

- ① comfortable time(쾌적하게 지내고 싶을때)
- ② calm night(편안한 밤에)
- ③ refreshed time(상쾌한 시간들 기질때)
- ④ oriental mind(향상에 잠기고 싶을때)
- ⑤ inspired mind(건강한 기분을 유지하고 싶을때)

### FREE PURE SPIRIT(3종)

파리, 뉴욕, 로스엔젤리스에서 발표되어 화제가 된 향으로 서양에서 향수가 아닌 향을 인정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현대적인 감성이 물어내는 향기시리즈입니다.

### 카유라기(8종)

그윽하게 퍼져나가는 카유라기의 향은 혼들지 않아야 누그러뜨려 보내는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 꿈의꿈세트(8종)

사시사철 24절기에 맞춘 소중한 꿈을 담아낸 향 시리즈입니다.